조리다 졸이다 바른 말 고르기

정리를 먼저 읽고, 괄호 안에서 바른 말에 ○ 하세요.

구분할 말 조리다 · 졸이다

양념이 배어들게 끓일 때는 「조리다」, 국물을 줄이거나 마음을 태울 때는 「졸이다」가 맞아요.

- **조리다**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,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.
- **졸이다** 찌개, 국,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.
- **졸이다**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.

구분법 쉽게 말해 맛을 배게 하면 조리다, 양을 줄이거나 마음을 태우면 졸이다예요.

바른 말 고르기 10문항

1. 가슴 **조리는 / 졸이는** 순간이었어요.
2. 고등어를 무와 함께 **조려요 / 졸여요**.
3. 발표 차례를 기다리며 마음을 **조렸어요 / 졸였어요**.
4. 엄마가 간장에 감자를 **조렸어요 / 졸였어요**.
5. 생선을 **졸이다 / 조리다**.
6.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**졸였다 / 조렸다**.
7. 찌개를 **조리다 / 졸이다**.
8. 마음을 **조리다 / 졸이다**.
9. 가슴을 **졸이다 / 조리다**.
10. 마음 **조리다 / 졸이다**.

이름 _____ 날짜 _____

조리다 졸이다 빈칸 쓰기 · 정답

보기에서 바른 말을 골라 빈칸에 써 보세요. 정답은 아래에 있어요.

빈칸 쓰기 4문항

1 가슴 [ ].

2 마음을 [ ] 기다렸어요.

3 국물을 [ ].

4 소스를 [ ] 걸쭉하게 했다.

보기

졸여 / 졸이며 / 조리다 / 조리며 / 졸이다 / 조려

바른 말 따라 쓰기

조리다 _____

졸이다 _____

조리다 _____

졸이다 _____

조리다 _____

졸이다 _____

조리다 _____

졸이다 _____

정답

바른 말 고르기 1 졸이는 2 조려요 3 졸였어요 4 조렸어요 5 조리다 6 조렸다 7 졸이다 8 졸이다 9 졸이다 10 졸이다

빈칸 쓰기 1 졸이다 2 졸이며 3 졸이다 4 졸여

이름 _____ 날짜 _____